

이 책은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출판되었음.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임원진

명예 회장 고도홍(한림대학교)
회 장 김현기(전북대학교)
부 회 장 김영태(이화여자대학교)
총무이사 김향희(연세대학교)
재무이사 이윤경(한림대학교)
연구이사 권미선(서울아산병원) 김수진(나사렛대학교) 배소영(한림대학교)
신문자(신 언어임상연구소) 윤미선(나사렛대학교) 윤영선(삼성서울병원)
이옥분(한림대학교) 표화영(이화여자대학교) 허승덕(동아대병원) 황민아(단국대학교)
섭외이사 강정숙(용인대학교) 김정미(나사렛대학교) 윤혜련(윤 언어교육원) 전병운(공주대학교)
정옥란(대구대학교) 정은희(조선대학교)
편집이사 김민정(우송대학교) 김화수(명지대학교) 심현섭(이화여자대학교) 이학선(연세대학교)
이희란(해전대학)
감 사 강연욱(한림대학교) 신지영(고려대학교)
편집간사 성수진(연세대학교) 이현정(연세대학교)

편집위원장

김향희(연세대학교)

분야별 편집위원

말 분야 상임편집위원: 심현섭(이화여자대학교)
고도홍(한림대학교) 권미선(서울아산병원) 김수진(나사렛대학교) 김현기(전북대학교)
신지영(고려대학교) 이호영(서울대학교) 정옥란(대구대학교) 최홍식(연세대학교)
언어 분야 상임편집위원: 신문자(신 언어임상연구소)
김영태(이화여자대학교) 김정미(나사렛대학교) 나덕렬(성균관대학교) 남기춘(고려대학교)
배소영(한림대학교) 서상규(연세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전병운(공주대학교)
황민아(단국대학교)
청능 분야 상임편집위원: 윤미선(나사렛대학교)
강창욱(강남대학교) 김규상(한국산업안전공단) 김수진(천안대학교) 석동일(대구대학교)
황도순(공주대학교)
관련 분야 상임편집위원: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강연욱(한림대학교) 곽영숙(제주대학교) 김애화(단국대학교) 김영옥(단국대학교)
김영주(홍익대학교) 박지연(이화여자대학교) 방명애(우석대학교) 신중호(서울대학교)
유애란(나사렛대학교) 조숙환(서강대학교)

연구방법 자문위원

남정모(연세대학교) 반재천(충남대학교) 성태제(이화여자대학교)

해외 편집위원

Owens, R. 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Geneseo)
Wilcox, K. A. (Michigan State University)

학회 주소

121-080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12-33 캠프21 오피스텔
제1동 1210호
전화: (02) 718-1986
이메일: kasa1986@kasa1986.or.kr
홈페이지: www.kasa1986.or.kr

편집부 주소

120-752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3층
연세대학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교수연구실 312호
전화: (02) 2228-3905
팩스: (02) 2227-7578
이메일: slp2@yumc.yonsei.ac.kr

차 례

언어분야	
정경희 · 배소영 한국 영유아의 제스처어 및 의미 발달	1
이승복 · 이희란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어휘적 모호성 이해	14
이윤경 학령기 아동언어장애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질적연구: 진단 및 평가 모형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30
박경아 · 김향희 · 박은숙 · 신지철 실어증 환자의 문법형태소 산출특성	51
나수화 · 정은희 정신지체아동 언어의 화용론적 특성 분석	64
최경순 · 황민아 Hyperlexia 아동의 단어 읽기에서 음운 및 의미 처리 특성: 교차양식 점화과제의 점화효과	81
백여정 · 박은숙 · 신지철 · 김향희 실독증 환자들의 한자어와 고유어 소리내어 읽기 비교	95
말분야	
이은선 · 석동일 읽기과제를 통한 5-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연구	108
관련분야	
김수진 · 최승숙 · 김정연 특수학급 교사들의 학교언어치료 서비스 모형에 관한 인식조사	121
<별첨 - 1> 학회지 게재신청논문 심사규정	140
<별첨 - 2> 학회지 게재신청논문 투고요령	146
<별첨 - 3> 학회지 게재원고 작성양식	147
<별첨 - 4>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154
<별첨 - 5> 학회지 게재원고 저자 점검표	155

한국 영유아의 제스츄어 및 의미 발달

정경희* · 배소영**

(*한림대학교 대학원 언어청각학협동과정,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정경희·배소영. 한국 영유아의 제스츄어 및 의미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6, 제11권, 제1호 1-13. 본 연구는 12, 18, 24개월 된 정상아동의 제스츄어와 언어의미적 측면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살펴보았다. 평가절차는 타당성이 검증된 Wetherby & Prizant(2002)의 ‘의사소통과 상징행동 척도’(CSBS DP, 2002) 중 일부를 응용해서 아동과 20여 분간 놀잇감을 갖고 상호작용을 하였다. 먼저 세 월령 집단의 아동들이 사용하는 제스츄어가 빈도나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언어적 의사소통방법으로 표현된 단어와 단어조합이 어떤 발달적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첫째, 세 월령 집단 아동들이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한 제스츄어 전체의 평균 분당 빈도수는 12개월 집단이 0.92회, 18개월이 2.45회, 24개월이 2.21회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사용한 제스츄어 중에서 월령간 차이가 나는 유형은 가리키기였다. 둘째, 단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한 평균 빈도는 12개월이 1.6회, 18개월이 16.7회, 24개월이 43.6회, 단어조합은 18개월에 평균 2.2회, 24개월은 평균 25.2회로 월령간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스츄어와 단어, 단어조합 등이 한두 낱말 단계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과정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핵심어: 의사소통행위, 제스츄어, 단어, 단어조합

I. 서 론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은 말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하며, 이러한 의사소통 발달 수준은 아동발달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Wetherby & Prizant, 2002). 만 1세를 전후로 해서 아동들은 주로 제스츄어나 발성동반 제스츄어, 발성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수단이 주를 이루다 만 2세를 전후로 낱말이나 낱말 조합 같은 언어적 수단을 습득하면서 비언어적인 수단이 줄어들고 언어적 형태의 사용이 증가하게 된다. 홍경훈(2001)은 19개월부터 24개월까지 한 아동의 종단연구를 통해서 19개월에는 발성을 동반한 제스츄어의 비율이 약 12%였다가 20개월 이후부터는 4%로 낮아지고 대부분 말의 형태로 의사소통의도를 산출한다고 했다. Morford & Goldin-Meadow(1992)에 따르면, 한 낱말 단계 아동은 제스츄어 단독 산출량이 많으며, 분당 1.5개의 제스츄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한 낱말 단계 아동이 사용하는 제스츄어의 유형으로는 주기, 보여주기, 뺏기, 가리키기 등이 사용된다. Bates(1979)는 여러 가지 제스츄어 유형 중 주기, 보여주기, 뺏기가 우선적으로 발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12 - 14개월 사이에 조금 늦게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생후 1년쯤 되었을 때 유아는 의미있는 첫 낱말을 산출하기 시작하면서 언어적 의사소통행위자로 성장하게 된다. Morford & Goldin-Meadow(1992)는 한 낱말단계 아동들이 의사소통행위를 위한 수단으로서 단어를 분당 2.8개 산출한다고 보고하였다. 최은희·서상규·배소영(2001)도 부모보고를 통한 연구에서 13 - 15개월에 평균 12개, 16개월에서 18개월에 평균 54개, 22개월에서 24개월에 평균 256개의 어휘를 산출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소영(1995)은 18개월을 전후로 해서 아동들이 폭발적으로 낱말을 습득하게 되고, 우리 나라의 경우 2세까지 100 - 300개 사이의 낱말을 표현하며, 2세까지는 아동의 언어발달을 평가할 때 어휘량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표현어휘가 약 50개정도 되면 아동들은 낱말들을 연결하여 문장형태를 만들기 시작한다(김영태, 2002). 김영태(2002)는 낱말조합에 사용된 의미관계 유형을 만 2세의 경우 15개로 나누어서 평균 출현 빈도와 아동의 사용률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였다. 위 글에서 만 2세 아동이 주로 사용하는 의미관계는 평균 출현빈도에서는 실체-서술, 대상-행위, 배경-행위, 배경-서술 등이 많이 나타났고, 사용아동비율에서는 대상-행위, 실체-서술, 배경-행위, 배경-서술이 많이 나타났다.

이처럼 언어이전기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은 이후 언어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Thal, Tobias & Morrison, 1991). 또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정서, 신체, 사회성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발달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Mundy et al., 1995).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생후 1 - 2년 동안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절한 평가는 이후의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을 미리 예측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체나 장애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조기 선별해서 조기 치료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보고에 의존한 표준화 검사 이외에 아직까지 36개월 이전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도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만 1 - 2세 정상아동들이 주로 어떤 의사소통수단을 사용하며, 그것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에 대한 일반아동의 객관적 자료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어느 정도의 수행수준에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기준을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 언어발달 지체나 장애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조기 선별하고 치료교육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etherby & Prizant(2002)의 의사소통과 상징행위 척도(Communication and Symbolic Behavior Scales: CSBS)를 이용해서 12개월, 18개월, 24개월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첫째, 12, 18, 24개월 된 일반아동이 표현하는 제스처어의 빈도와 유형에서 각 집단간 차이가 있는가?

둘째, 12, 18, 24개월 된 일반아동이 언어적 의사소통형태로 표현하는 단어와 단어조합은 어떤 발달적 특징을 보이는가와 같은 의사소통수단의 발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정상적 발달을 하는 유아들이다. 아동의 생활연령은 12개월, 18개월, 24개월로 나누었으며(± 15일), 각 연령 별로 10명의 아동을 선정했다. 정상발달 아동의 선정 기준은 1) 부모 면담 결과 발달상의 문제가 없으며, 2) DDST(오가실 역, 1976) 검사 결과, 모든 영역에서 정상 범위에 속하며, 3) SELSI(김영태 외, 2003) 검사 결과 -1SD이내에 속하며, 4) 사회성숙도 검사(김승국·김옥기, 1969)검사 결과 -1SD이내에 속하는 아동이다.

2. 연구방법

가. 실험도구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이 검증된 Wetherby & Prizant(2002)의 ‘의사소통과 상징행동 척도’(Communication and Behavior Scales Developmental Profile: CSBS DP, 2002) 행동샘플 절차를 사용해서 아동이 표현한 의사소통수단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척도는 태엽감은 장난감, 풍선, 비눗방울, 병속의 과자, 책보기, 상징놀이 등으로 이루어졌고, 장난감이나 실험순서 등은 저자가 제시한 실험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실험절차는 다음 <표 -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 1> 샘플 절차

Warm-up	아동에게 장난감을 주고, 검사실 및 검사자와 친숙해지도록 시간을 주면서 부모면담을 통한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의사소통으로의 유혹 (약 5 - 10분)	1. 태엽감은 장난감 주머니 속 장난감	장난감을 움직이게 한 후 아동 앞쪽 책상위에 올려놓는다. 작동이 멈춘 후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기를 기다린다. 10초 이상 반응이 없으면 “도와 줄까?”하고 손을 내민다. 2번의 기회를 준 뒤 “꿀꿀이 안녕”하며 장난감을 치운다. 2개의 동물인형과 2개의 치발기를 넣은 형겅 가방을 아동 앞에 흔들면서 보여준다. 아동이 가방 안에서 장난감을 하나 꺼내도록 유도하거나 검사자가 꺼내서 준다. 잠시 엄마와 함께 이것을 가지고 놀도록 하고, 검사자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한다. 이 때 발생한 의사소통행위도 체크리스트에 기록한다. 이 과정을 의사소통으로의 유혹 네 가지 과제에서 동일하게 실시한다.
	2. 풍선 주머니 속 장난감	같은 색의 풍선 2개를 준비해서 하나를 검사자가 분 후, 아동이 만지거나 놀러보도록 권한다. 풍선의 바람을 아동의 반대 방향 쪽으로 천천히 빠져 나가도록 한 후, 나머지 풍선을 아동 앞에 놓는다. 잠시 아동의 반응을 기다린 후 10초 이상 반응이 없으면 “도와줄까?”하며 손을 내민다. 2번의 기회를 준 후 “풍선 안녕”하며 풍선을 치운다.

(<표 - 1> 계속)

의사소통으로의 유혹 (약 5 - 10분)	3. 비눗방울 주머니 속 장난감	검사자는 아동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비눗방울을 분다. 손잡이로 비눗방울을 하나 잡아 아동이 직접 터트려 보도록 권한다. 아이가 흥미를 보인 후 비눗방울 병을 꼭 닫고 병을 흔들어 보여준 후 아동 앞의 책상 위에 놓는다. 10초 이상 반응이 없으면 “도와줄까?”라고 말하며 손을 내민다. 2번의 기회를 준 후 “비눗방울 안녕”하며 풍선을 치운다.
	4. 병속의 과자 주머니 속 장난감	우선, 아동의 어머니에게 과자를 먹여도 되는지 물어본다. 아동이 과자에 관심을 갖게 한 후, 하나를 먹어보도록 권한다. 뚜껑이 있는 투명한 병에 과자를 담고 뚜껑을 꼭 닫는다. 병을 아동의 눈높이에서 흔들어 보여준 후, 아동 앞의 책상 위에 놓는다. 10초 이상 아동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도와줄까?”라고 말하며 손을 내민다. 2번의 기회를 준 뒤 “과자 안녕”하며 병을 치운다.
책 보기 (약 5분)	세 개의 책을 아동에게 보여주고, 아동이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두 권은 책상에서 치운다. 어머니와 아동이 자연스럽게 책보기를 하도록 권하되, 어머니가 아동에게 너무 많이 질문하지 말고, 아동에게 자연스럽게 반응해주도록 미리 말해준다. 만약 아동이 책 한 권을 너무 빨리 다 보면 나머지 두 권 중에 다른 한 권을 더 선택해서 보도록 권한다.	
상징놀이 (약 5분)	아동에게 빵빵이와 아기 인형 중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 고르도록 한다. 우유병 2개, 컵 2개, 손가락 2개 포크 2개, 그릇 2개를 아동의 앞에 놓아준 후 자연스럽게 놀이를 진행하도록 한다. 검사자는 아동의 놀이를 모방하거나 아동의 요구에 반응해준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나머지 소꿉놀이 장난감을 모두 준다.	

나. 자료수집 및 절차

본 논문에서는 ‘의사소통과 상징행동 척도’ (Communication and Behavior Scales Developmental Profile: CSBS DP, 2002)에서 요구한 실험 도구를 서울과 경기도 지역 5곳에 설치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사자는 실험도구의 메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3명의 언어병리 전공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전에 비디오 데모 테잎을 통해 평가절차와 방법을 훈련하였다. 주검사자와 부검사자 2명을 한 조로 하고, 3명이 조를 바꿔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약 1개월 동안 각 월령별로 1 - 2명 정도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본 검사 진행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의사소통과 상징행위척도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부모면담과 DDST와 SELSI, 사회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여 정상발달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험진행 과정에 사용된 장난감은 CSBS 검사도구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풍선만 구매해서 보충하였다. 모든 실험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다. 자료분석

집계된 자료는 의사소통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제스처어 형태와 언어적인 형태로 나누어서 총

사용빈도와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의사소통행위로 간주하는 기준은 Wetherby & Prizant(2002)이 CSBS DP에서 제시한 세 가지에 기준을 토대로 하였다. 즉 첫째, 어른을 향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의사소통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 발성이나 제스츄어, 언어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스츄어는 어른을 향해서 몸짓이나 손짓 등을 이용해서 어떤 의도를 전달하는 경우에 아동이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으며, 유형으로는 CSBS 활동지에 체크되어 있는 주로 관습적 형태의 제스츄어를 다루었다. 단어나 단어조합에서 단어를 사용하는 기준은 조음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일관된 발성으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면 단어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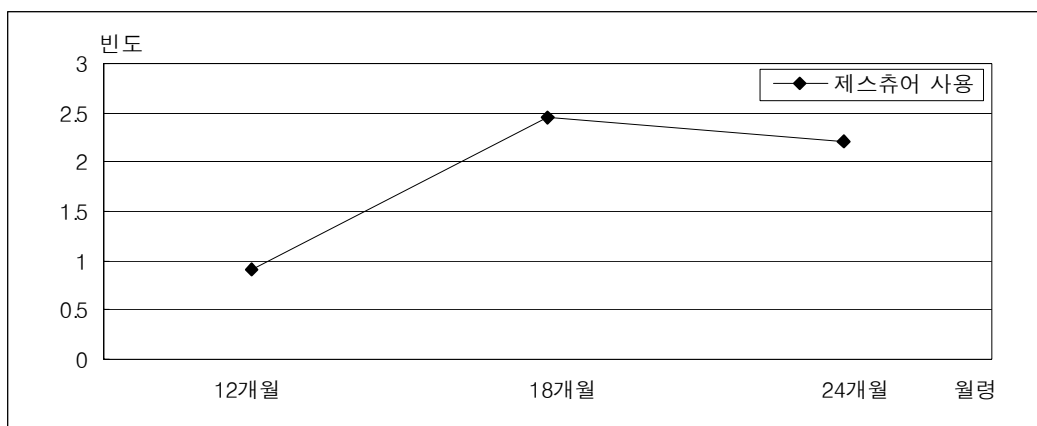
라. 신뢰도

자료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에 참가한 주검사자와 CSBS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언어병리 전공 대학원생의 평가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20%(30개의 샘플 중 6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아동이 사용한 제스츄어와 언어적 의사소통수단을 전사해서 신뢰도를 측정할 결과 제스츄어에 관한 검사자간 신뢰도는 82%이고, 단어와 단어조합 사용에 관한 검사자간 신뢰도는 90%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 유아의 제스츄어 발달 특징

가. 제스츄어 사용빈도



<그림 - 1> 전체 제스츄어의 월령간 분당 빈도의 차이

<그림 - 1>은 세 월령 집단이 제스츄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발성이나 단어와 결합해서 사용한 전체 제스츄어의 분당 평균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12개월 아동은 분당 0.92회(표준편차 .59), 18개월은 분당 2.45회(표준편차 2.45), 24개월은 분당 2.21회(표준편차 2.21)로 나타났다. 세 월령 집단 간 분당 제스츄어 빈도가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 2> 전체 제스츄어 분당 사용빈도 분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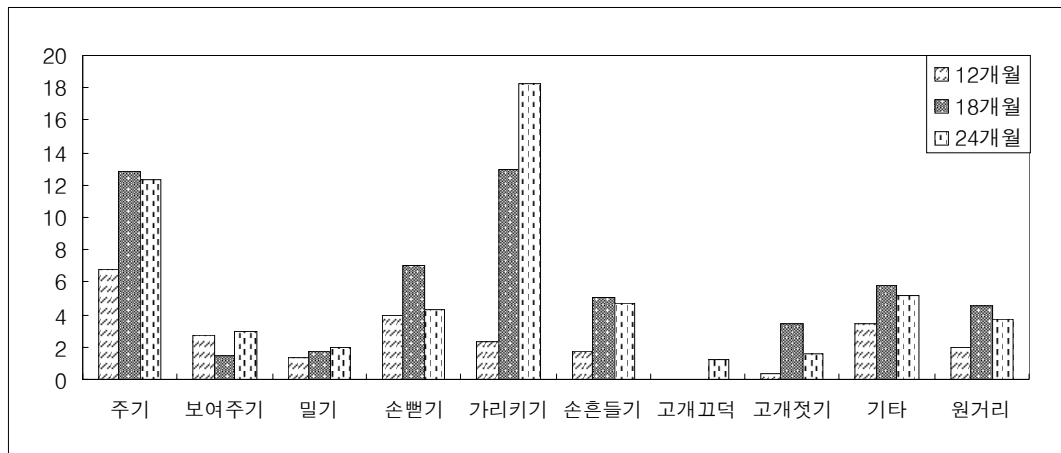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월령집단	13.52	2	6.76	6.70	.004**
오차	27.23	27	1.00		
총	40.751	29			

** $p < .01$

세 집단간의 차이를 다시 사후검정한 결과 12개월과 18개월($p = .008$), 12개월과 24개월($p = .027$)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18개월과 24개월($p = .87$)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나. 제스츄어 유형

각 월령별 집단의 제스츄어 유형별 사용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 2>에 제시되어 있다. 12개월 아동은 주기, 손뽀기, 보여주기, 가리키기의 빈도가 높았고, 18개월은 가리키기, 주기, 손뽀기의 빈도가 높았다. 24개월 집단은 가리키기, 주기 등의 빈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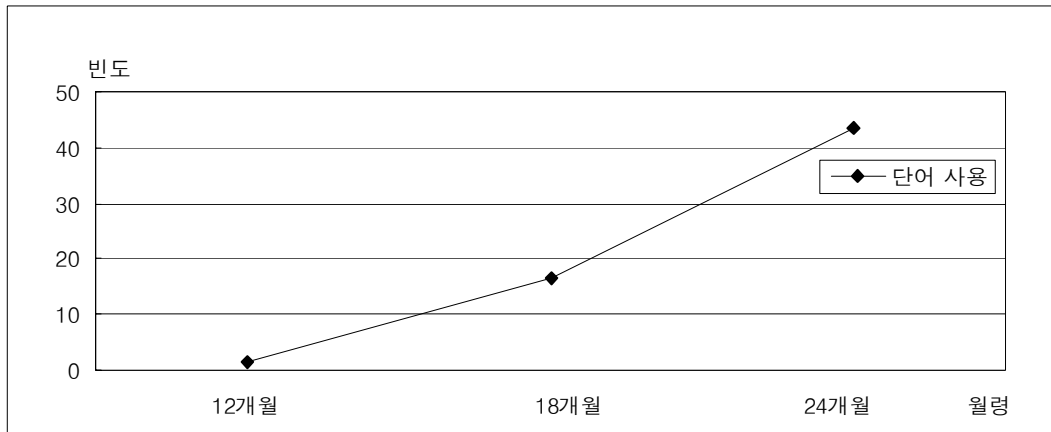


<그림 - 2> 제스츄어의 유형의 월령간 차이

세 집단 간의 제스처어 유형에 따른 빈도의 차이를 ANOVA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가리키기에 서만 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5.53, p = .010$). 세 집단간 사용빈도에서 차이가 난 가리키기 항목을 다시 사후검정한 결과 12개월과 24개월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8$).

2. 일반 유아의 언어적 의사소통수단의 특징

가. 단어



<그림 - 3> 단어 사용빈도의 월령간 차이

<그림 - 3>은 세 월령 집단 아동들이 단어만을 사용해서 의사소통한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단어 사용의 경우 12개월은 1.6회(표준편차 2.32), 18개월은 16.7회(표준편차 16.59), 24개월은 43.6회(표준편차 24.60)이다. 또한 세 월령 집단 아동들이 사용한 단어의 평균 분당 빈도는 12개월이 0.06회, 18개월은 0.72회, 24개월은 1.72회이다. 세 집단 간 단어 사용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세 월령 집단의 단어 사용 빈도에 대한 분산분석은 <표 -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 3> 단어 사용빈도의 분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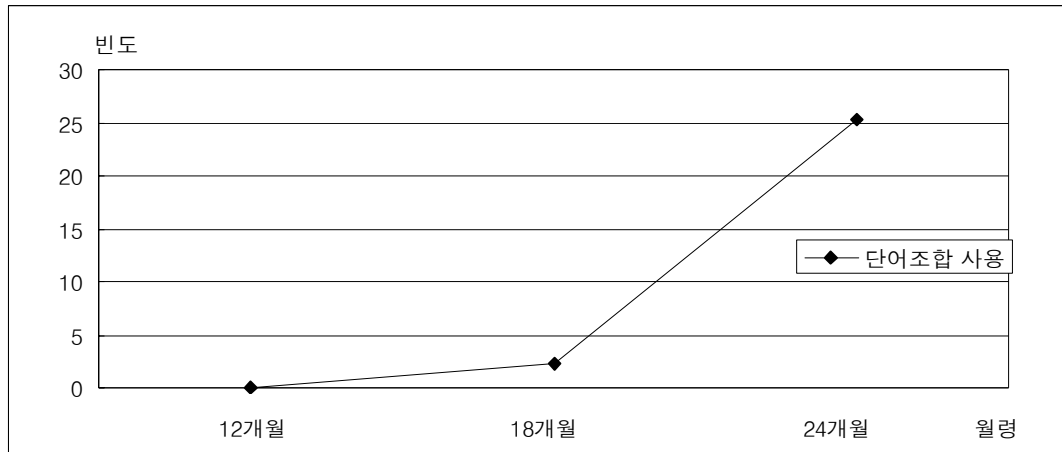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월령집단	9052.07	2	4526.03	15.33	.000***
오차	7970.90	27	295.22		
총	17022.97	29			

*** $p < .001$

다시 이 차이를 사후검정한 결과 12개월과 24개월($p = .00$), 18개월과 24개월($p = .006$)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나. 단어조합

(1) 단어 + 단어의 사용빈도



<그림 - 4> 단어조합 사용빈도의 월령간 차이

<그림 - 4>는 세 월령 집단 아동들이 단어 + 단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한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세 월령 집단 아동들이 단어 +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12개월에는 없었으며, 18개월은 2.2회(표준편차 4.61), 24개월은 25.2회(표준편차 24.09)이다. 세 집단 간 단어 + 단어 사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세 월령 집단의 단어 + 단어 사용 빈도에 대한 분산분석은 <표 -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 4> 단어조합 사용빈도의 분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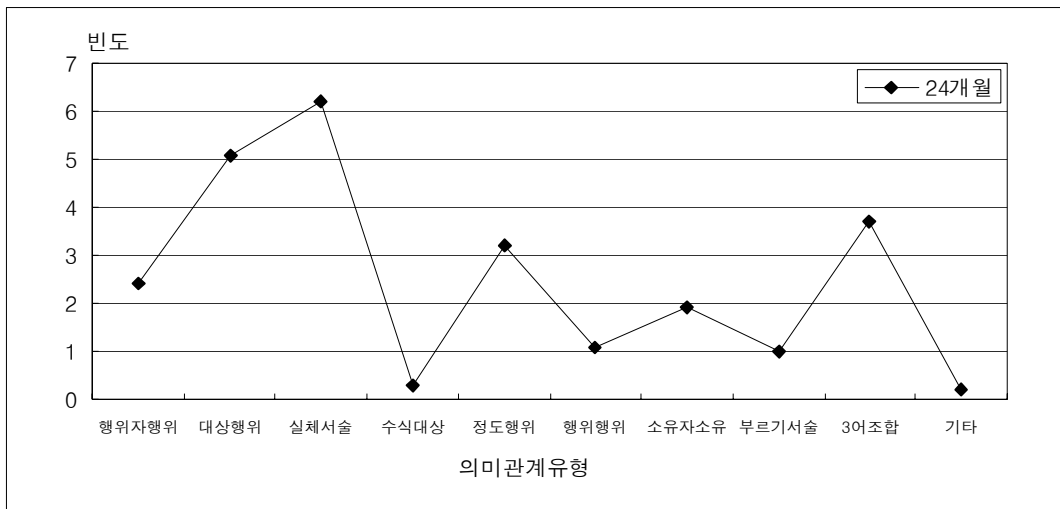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월령집단	9052.07	2	4526.03	15.33	.000***
오차	7970.90	27	295.22		
총	17022.97	29			

*** $p < .001$

다시 이 차이를 사후검정한 결과 12개월과 24개월($p = .002$), 18개월과 24개월($p = .005$)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 단어 + 단어에 사용된 의미관계

<그림 - 5>는 단어 + 단어에서 24개월 아동들이 주로 사용한 의미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4개월 유아들이 단어조합에 주로 표현하는 의미관계는 실체 + 서술(이거 코끼리, 이거 뭐야, 이거는 자동차), 대상 + 행위(우유 마실까, 애기 볼래, 맘마 먹어) 등의 빈도수가 높은 편이다



<그림 - 5> 단어조합유형별 비교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생활 연령이 12, 18, 24개월의 정상 발달 아동을 대상으로 제스처어 및 언어적 의사소통수단의 특성을 CSBS DP (Wetherby & Prizant, 2002)의 Behavior Sample을 이용해서 살펴보았다.

세 월령 집단 아동들이 의사소통수단으로서 사용하는 제스처어의 분당 빈도수는 12개월에는 0.92회(표준편차 .59), 18개월과 24개월에는 각각 2.45회(표준편차 1.45)와 2.21회(표준편차 .75)이다. 이는 Morford & Goldin-Meadow(1992)가 한 낱말 단계 아동이 분당 1.5개의 제스처어를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세 월령 집단 아동들이 제스처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한 전체 빈도수를 보면 세 월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제스처어나 발성이 한 낱말 단계의 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수단이며, 구어능력이 발달하는 두 낱말 단계로 나아가면 제스처어의 사용 비율이 줄어든다는 홍경훈·김영태(2001)와 Wetherby et al.(1988)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의 경우 전체 의사소통행위 중에서 제스처어를 사용한 비율을 측정했기 때문인 반면, 본 논문에서는 분당 제스처어 사용 빈도를 측정했기 때문이다. 즉, 월령이 늘어날수록 전체 의사소통행위의

빈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의사소통행위에 대한 비율과 달리 빈도수가 현저히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제스츄어 유형면에서 볼 때 본 논문에서 주로 측정했던 관습적 제스츄어의 유형 중에서 주기, 보여주기, 손뽀기, 가리키기 등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그런데 제스츄어의 여러 유형 중에서는 가리키기만이 세 월령 집단 중 12개월과 24개월 사이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12 - 14개월 사이에 가리키기 제스츄어가 출현한다는 Bates et al.(197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만 1세, 2세 사이에 아동들의 발달적 특성을 보는데 가장 유용한 의사소통수단은 가리키기 제스츄어임을 시사해준다.

아동당 약 20여분간의 단어 사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한 평균 빈도는 12개월이 1.6회(표준편차 2.32), 18개월이 16.7회(표준편차 16.59), 24개월이 43.60회(표준편차 24.60)이며, 세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영유아기 아동들이 두 돌이 가까워짐에 따라 단 단어 발화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홍경훈·김영태, 2001; Capirci & Iverson, 1996).

세 월령 아동 각 10명 중 3명 이상의 아동이 사용한 낱말은 12개월 아동의 경우 ‘엄마’, 18개월 아동의 경우 ‘아가’, ‘엄마’, ‘까까’, ‘맘마’, ‘물’, ‘코’, ‘이거’, 24개월 아동의 경우 ‘꼬꼬’, ‘입’, ‘발’, ‘엄마’, ‘아빠’, ‘뽕뽕’, ‘애기’, ‘코’, ‘원숭이(끼끼)’, ‘-꺼’, ‘사자’, ‘코끼리’, ‘차’, ‘뽕뽕이’, ‘멍멍이’, ‘까까’, ‘바나나’, ‘풍선’, ‘여기’, ‘이거’, ‘똥야’, ‘내가’, ‘가’, ‘봐’, ‘해’, ‘쥐’, ‘먹어’, ‘열어’, ‘나와’ 등 이었다.

일반 아동들의 경우 18개월이 되면 두 낱말 조합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두 돌 전후로 두 낱말 출현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본 논문의 연구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18개월 아동 중에서 3회 이상 낱말조합을 사용해 의사소통 한 아동은 10명 중 2명이었다. 전체적으로 18개월에 평균 2.2회(표준편차 4.61), 24개월은 평균 25.2회(표준편차 24.09)의 낱말조합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나이가 만 2세 전후에 이르르면 단어조합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해준다(배소영, 1995; Capirci & Iverson, 1996). 또한 24개월 아동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미관계는 ‘실체+서술(이거 바나나야)’, ‘대상+행위(쭈쭈 먹어)’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두 낱말 의미관계에서 ‘실체+서술’이 평균출현빈도가 5.44이고, 사용 아동율이 87.2%, 대상+행위가 평균출현빈도가 4.62, 사용 아동율이 97.4%로 가장 많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김영태, 2002).

이 연구는 한국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스츄어와 언어적 의사소통수단의 발달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CSBS DP (Wetherby & Prizant, 2002) 검사도구의 적용가능성을 발달적으로 타당하게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서울과 경기도에 한정된 특정 지역 3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또한 구어적 의사소통능력의 의미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구어의 음운론이나 화용론적 측면 같은 다양한 측면을 다루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기반으로 이후 연구자들에게 9 - 36개월까지 정상유아를 대상으로 CSBS DP의 표준화 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언어발달 위험에 처한 만 3세 이전의 영유아를 조기 선별하고 조기 치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된 평가도구로는 평가가 어려운 정서 및 발달장애 아동이나 기타 장애 아동들을 정상아의 수행기준과 비교할 수 있는 연

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또한 이후 연구자들이 우리 나라 영유아기 아동이 사용하는 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음운론이나 화용론적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승국 · 김옥기(1969). 사회성숙도검사. 중앙적성연구소.
- 김영태(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배소영(1995). 우리 나라 아동의 언어발달. 『언어치료전문요원교육 1995』, 한국언어병리학회.
- 오가실(역)(1976). Denver Development Screening Test(DDST) 검사지침서. 서울: 현문사.
- 홍경훈 · 김영태(2001). 아동의 의사소통의도 습득에 대한 종단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6(1), 17-33.
- 최은희 · 서상규 · 배소영(2001). 1;1-2;6세 한국 아동의 표현어휘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6(1), 1-16.
- Bates, E., Benignim L., Bretherton, I., Camaioni, L., & Volterra, V.(1979). *The emergence of symbols: Cognition and communication in infancy*. New York: Academic Press.
- Capirci, O. & Iverson, J.(1996). Gesture and words during the transition to two-word speech. *Journal of Child Language*, 2, 645-673.
- Morford, M. & Goldin-Meadow, S.(1992).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gesture in combination with speech in one-word speakers. *Journal of Child Language*, 19, 559-580.
- Mundy, P., Kasari, C., Sigman, M., & Ruskin, E.(1995). Nonverbal communication and early language acquisition in children with Down syndrome and normal developmen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8, 157-167.
- Thal, D., Tobias, S., & Morrison, D.(1991). Language and gesture in late talkers: A 1-year follow-up.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4, 604-612.
- Wetherby, A., Cain, D., Yonclas, D., & Walker, V.(1988). Analysis of intentional communication of normal children from the prelinguistic to the multiword stag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31, 240-252.
- Wetherby, A. M. & Prizant, B. M.(2002). *Communication and Symbolic Behavior Scales Developmental Profile*(Manual). Baltimore: The Brookes Publishers.

<부록 - 1> 세 월령 집단 아동들이 사용한 낱말 목록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의성어	사회적 표현	총계
12 개월	엄마(4) 아빠(1) 맘마(2)			취(1)			또(1)	남남(2)	응(1)	
계	3	0	0	1	0	0	1	1	1	7
18 개월	쭈쭈(2) 뽀뽀(1) 끼끼(1) 아가(4) 엄마(8) 책(1) 아빠(1) 할머니(1) 눈(1) 언니(1) 명명(2) 토끼(1) 까까(3) 까꿍(1) 발(1) 맘마(4) 물(3) 바나나(1) 꼬꼬(1) 코(4) 하마(1) 코끼리(1) 뽕뽕(1) 우유(1) 뚜껑(1) 엉덩이(1)	이거(5) 뒤(1) 저거(1)	둘(1) 셋(1)	가(1) 먹어(2) 해(1) 했어(1) 됐다(1) 내려(1) 취(2) 열어(1) 빼(1)	맛있다(1) 무서워(1) 아파(1) 없다(2)		또(2)	뽕(2) 음머(1) 남남(1) 꿀(1) 뽀뽀(1) 후(1)	안녕(3) 아니(3) 응(2) 안돼(4) 네(2)	
계	26	3	2	9	4	0	1	6	5	56
24 개월	꼬꼬(3) 머리카락(머리털,2) 입(3) 발(4) 엄마(8) 아빠(5) 뽕뽕(5) 책(2) 뚜껑(1) 자기이름(2) 애비(1) 선생님(2) 애기(5) 코(4) 눈(2) 밥(2) 바닥(1) 전화(1) 포크(1) 생쥐(1) 엉덩이(1) 오줌(1) 쉬(1) 기린(1) 소리(1) 빨(1) 공룡(1) 칼(1) -꺼(4) 끼끼(원숭이, 5) 귀(2) 배(1) 사자(3) 코끼리(5) 포도(1) 손가락(1) -거(2) 집(2) 토끼(1) 얼룩말(1) 오리(1) 차(4) 뽕뽕(3) 명명(4) 우유(1) 손가락(1) -개(1) 체리(1) 까까(5) 쭈쭈(2) 공(2) 인형(1) 컵(1) 언니(1) 물(2) 형(1) 바나나(3) 딸기(2) 사과(1) 꿀꿀이(1) 악어(악어때, 1) 말(2) 풍선(3) 손(2) 곰(1) 사탕(1) 크레파스(1)	여기(6) 이거(8) 뒤야(6) 이쪽(1) 조기(2) 이렇게(2) 어디(1) 내가(1) 누구(2) 저거(2) 네가(1) 내가(3)	둘(1) 하나(1) 셋(1)	잡아(2) 가(4) 봐(5) 취(7) 해(6) 했어(1) 먹어(7) 꺼졌어(1) 열어(4) 빼(1) 다쳤어(1) 가져(1) 타(1) 자다(1) 떨어져(2) 마셔(1) 잘라(1) 따라(1) 끼어(1) 나와(3) 치위(1) 바뀐(1) 들어가(1) 앉아(1) 만져(1) 뜯어(1) 올어(1) 넘겨(1) 쏟아(2) 령겨요(1) 왔어요(1) 누웠어(1) 됐다(1) 썼어(1)	똑같네(1) -봐(2) 있다(4) 뜨거워(1) 배고파(1) 많다(1) 크다(1) 없다(3) 아파(1)	어떤(1) 만(1)	왜(1) 안(4) 같이(2) 다(2) 또(5) 그만(1) 어떻게(2) 이제(1) 잘(1) 더(1) 다시(1) 아까(1)	쿵쿵(1) 꿀꿀(1) 우웅(1) 다(2) 까꿍(1) 뽕뽕(1) 명명(1) 어흥(2) 남남(2) 부웅(1) 뽕(4) 앙(2) 음메(2) 보들(1) 잉잉(1)	아니야(4) 야(1) 애야(1) 응(9) 안녕(5) 뽀뽀(2) 안돼(5) 네(3) 아멘(1) 싫어(2) 이눔(1)	
계	67	12	3	34	9	2	12	15	11	165

()는 10명의 아동 중 해당 단어를 의사소통상황에서 사용한 아동

ABSTRACT

The Early Semantic and Gestural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Kyung Hee Jung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Audiology
& Speech Pathology, Hallym University)

Soyeong Pae

(Division of Speech Pathology & Audiology, Hallym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d early semantic and gestural development of normally developing 12-, 18-, and 24-month old Korean children. About 20-minute communication data were collected for each child using play materials from CSBS-DP by Wetherby & Prizant (2002). The use of gestures was 0.92, 2.45 and 2.21 gestures per minute for the 12-, 18-, and 24-month old children, respectively. The children used more words during the 20-minute interaction as they got older: 1.6, 16.7 and 43.6 words for the 12-, 18-, and 24-month old children, respectively. Eighteen-month olds used 2.2 word combinations while 24-month olds used 25.2 word combinations. Individual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frequencies of gesture, word, and word combinations.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frequencies of gestures, words and word combinations could be valuable developmental indices for Korean communicative development.

Key Words: communication, gesture, word, word combinations.

▶ 게재 신청일: 2006년 1월 18일

▶ 게재 확정일: 2006년 3월 20일

▶ 정경희(제 1 저자 및 교신저자): 한림대학교 대학원 언어청각학 박사과정, e-mail: jkh1012@korea.com

▶ 배소영(공동저자):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과 교수, e-mail: spae@hallym.ac.kr